

전남 중부권

# 지자체 혈세절약 비법 있었네

## 장흥군 계약심사로 41억...영암군 합동설계단 운영 4억 절감

장흥, 영암군 등 전남 각 지자체에서 합동설계단 운영과 계약심사를 통해 막대한 예산절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37건 계약심사를 세밀히 살펴 혈세납비 41억을 절감했으며, 올해는 50억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추진할 마을 안길 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합동설계단을 운영, 4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계약심사로 혈세 절감=장흥군은 지난해 계약심사로 41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원가심사 인력(시설 8급) 1명을 배치해 총 37건, 790억원의 사업비 심사를 실시해 계약상 오류를 발견해

바로 잡은 것은 전체 사업비의 5.3%인 41억원으로 군민의 혈세를 절감했다.

발주사업 및 각종 용역, 물품구입, 설계변경 증·감액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군 계약심사 공무원이 심사를 실시해 예산납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통한 공법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절감된 예산은 노인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확보로 재투자되어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 한해 계약심사를 통해 50억원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설계단 운영=영암군은 올

해 추진할 마을 안길 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읍·면 시설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이 설계단은 다음 달 11일까지 함께 모여 자체 설계가 가능한 마을 안길을 비롯해 진입로 및 농로 포장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43여억원이 투입되는 120여 개 사업에 대해 이달 중 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달 초 공사를 발주해 영농기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동 설계단 운영으로 4억 2000여만 원의 설계 용역비가 절감되고 사업 초기 발주로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중부권본부=김용기·이상희기자 kykim@

# 나눔 있어 살맛나는 세상

## 나주초 희귀병 어린이 각계 성금 줄이어

나주중앙초등학교 강민규(1학년) 어린이가 장이 썩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광주일보 1월 5일 10면> 이후 각계각층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 직원들은 지난 24일 성금 50만원을 모금해 가족에게 전달했으며, 농협 중앙회 나주시지부측도 금일봉을 전달, 위로했다.

김인숙 교육장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만큼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상태다”며 “완쾌되기까지 주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군은 현재까지 4번의 대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또 다시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가운데 400여만원이 미납돼 더 이상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강군의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병원비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이며, 어머니도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 별도의 일을 하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한 상태여서 더욱 위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중부권본부=최승철기자 srchoi@

# “이웃사랑 노래해요”

## 한전 강진 빛사랑음악봉사단

한전 강진지점 빛사랑 음악봉사단(단장 오호준)이 지난 20일 강진노인 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실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점심식사 배식봉사, 음악회, 후원금 전달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한전 빛사랑 음악봉사단원들이 색소폰 연주와 합창 등 멋진 공연을 펼쳐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오호준 단장은 “우리 이웃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 ‘나눔 경영’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빛사랑 음악봉사단은 지난 2009년 12월에 결성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음악봉사 및 후원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중부권본부=남철희기자 choul@



“청자 빚기 빠져 봅시다~” 단국대 강진 도예학교 계절대학 수강생들이 청자 연리문 점시를 빚고 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계절대학은 전국 각지의 도예작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에서 홀로 거주하는 김순덕(99) 할머니를 찾아 말벗이 돼주고 생필품과 위문금을 직접 전달했다. 화순경찰의 사랑나눔 운동은 지난 2008년 12월 사랑의 연탄배달로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돼 오고 있다.

# 화순경찰 ‘독거노인 안전살핌’ 호평

화순경찰서(서장 한재숙)가 수년째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운동’을 실천, 호응을 얻고 있다.

한재숙 서장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

로 전남지역에 독거노인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독거노인 안전살핌’이 왜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방문, 안전을 살피고 위문했다.

/중부권본부=정운수기자 unsu@

한편 빛사랑 음악봉사단은 지난 2009년 12월에 결성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음악봉사 및 후원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중부권본부=남철희기자 choul@



# 전 북

# 군산 해상경계 다툼 ‘골머리’

## 김제·부안 이어 충남 서천 주민들도 어로 단속 반발



자연이 그린 수묵화 ‘개암사의 눈’ 부안군 추미의 ‘제1회 부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서울 이찬덕씨가 출품한 ‘개암사의 설(雪)’이 금상을 차지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전국에서 535점이 응모해 151점이 입상했다. (부안군 제공)

군산시가 지난해부터 해상경계를 놓고 벌여온 인근 시·군과의 다툼이 충남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해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더불어 해상경계 설정문제로 인근 김제시, 부안군과 설전을 벌였던 군산시는 신묘년 새해 초부터 충남 서천주민들의 반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남지역 어업권을 갖고 있는 형망어민 30여명은 최근 군산시를 향의방문해 “현행 법률상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속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상경계 해석이 불분명함에도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조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충남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의 어로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군산과 충남 서천군의 경계지역을 공동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 연도(島)에서 아래쪽으로 3~4마일 정도는 공동어업으로 설정해 누구나 어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군산시와 군산지역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키조개 밭’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겨울철이면 군산과 충남 어민 간에 키조개 채취 분쟁이 잦은 곳이다.

충남도의회도 최근 정례회를 열어 ‘충남과 전북간 공동조업 구역 지정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군산시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가 개

통된 지난해에는 “현재 군산시 위주로 설정된 해상 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김제시, 부안군의 잇단 주장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남쪽으로는 새만금방조제와 관련해 김제·부안과 북쪽으로는 조업 구역 문제로 충남도와 마찰을 빚는 군산시가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아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김제와 부안은 물론이고 인근 충남에서 주장하는 해상권 행정구역 개편과 조업구역 재설정에는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권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전주 ‘버스파업’ 끝나나

## 노·사 해고자 복지·고소 취하 사실상 합의

# 롯데마트 남원점 건축심의 ‘부결’

## 시건축위 “주변 교통 지장·관련규정 위배”

남원시는 최근 지방건축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 판매시설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부결처분을 했다.

남원시 건축위원회는 “대형 마트가 입점할 경우 주변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교통대책 부적정 등 관련규정 사항의 위배조건을 들어 부결처리 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해 9월 지하 2

층·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만9444㎡·매장면적 8113㎡ 규모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건축위원회를 열고 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토록 의결한바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권본부=백선기자 bs8787@

파업 49일째를 맞는 전주시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주요 쟁점들에서 의견 접근을 바 타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나 해고자 복지과 파업 과정의 고소·고발 취하에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은 세부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인 노조 인정과 성실 교섭에 대해서는 사측이 “법

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전주시 주변에서는 노사가 핵심 쟁점들에 의견 접근을 봄에 따라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측은 “이로써 파업 문제가 80% 정도는 풀렸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사측도 “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자”며 조속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7개 시내·시의 버

스 노조는 지난해 12월 8일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해고·징계 등의 탄압 중단 및 정당한 대우보장 ▲과도한 근로시간 조정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권본부=김영수·김용철기자@

光州日報 전북취재본부	
군산 박금석 국장	☎467-2500
전주 김철수 국장	☎214-6113
김용철 기자	
정읍 박기섭 국장	☎531-5544
익산 류정영 부국장	☎835-3133
순창 이흥희 부장	☎653-0444
남원 백 선 차장	☎633-9911
김제 홍윤선 기자	☎214-6113
부안 윤길호 기자	☎214-6113
고창 김용철 기자	☎214-6113
임실 서은중 기자	☎653-0702

# 단 신

## 정읍농기센터 내달 15일부터 자생화 교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15일부터 자생화 교실과 화훼 장식 기능사반을 운영한다.

자생화 교실에서는 ▲자생화 기르는 요령 ▲나만의 분경 만들기 ▲꽃이 되는 정읍 자생화 100선 ▲자생화 사진 찍는 요령 ▲원

예치료법 ▲암화 등을 교육한다. 올해 처음 마련된 화훼 장식기능사반에서는 시민과 농업인 대상으로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갖는다. 문의·신청 (063-539-6341) /전북권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부안군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부안군은 26일 오후 2시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12개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한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소기업·소상

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산업기능요원 고용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중소기업 인력구조조정도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현장에로 상담도 실시한다. /전북권본부=윤길호기자 y2011@

## 임실군-임실중기연합 재해복구 지원 협약

임실군과 임실군 중기연합회는 24일 풍수해와 설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재해복구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임실군 중기연합회는 비상연락체계 등을 지역별로 구축해 재난발생시 군청의 요청에 따라 즉

시 현장에 투입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재난발생시 복구 현장에 투입될 중장비의 부족으로 복구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권본부=서은중기자 seo@

## 김제시 25~26일 ‘설맞이 농특산물 특판’

김제시는 25~26일 시청 민원실 앞 광장에서 ‘2011년 설맞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갖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지역 농특산물 소싱몰인 ‘김제 지평선몰’(www.jpsmall.com)에 입점한

상품 230개 품목 가운데 지평선 쌀·사과·배·주류 등 대표상품 20여종을 판매,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시청 공무원들도 농특산물을 자발적으로 구입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북권본부=홍운선기자 hnews@